

“이대로 가단 나라 망한다 2012년 민주정부 세워야”

야권 단일정당 100만회원 모집위해 광주 온 문성근씨

영화배우 문성근(58)씨가 다시 거리를 나섰다. ‘유쾌한 100만 미만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새로운 시민운동을 위해서다.

이 프로젝트에는 시민의 힘으로 민주·진보 진영을 하나의 정당으로 묶어 2012년 민주정부를 세워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지난 15일 광주우체국 앞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주일 간 광주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야권 단일정당 건설을 목표로 ‘100만 회원 모으기 운동’에 나선 영화배우 문성근씨가 15일 밤 광주시 동구 충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사라지면 서 대부분의 정치인이 이들이 남긴 기록만 누리겠다는 생각이다.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야권 단일정당만이 민주정부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에 거리로 나섰다.

2003년 노사모를 탈퇴하고 이듬해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뒤 정치권 인근에서 자취를 감췄던 그가 왜 다시 거리를 나섰다. 향후 일정 등에 대해 인터뷰했다.

-본업인 영화를 뒤로하고 다시 거리로 나선 이유는.

▲이명박 정부 1~2년 지나고 보니, 한나라당이 더 집권하면 나라가 망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망가질 줄 몰랐다. 민주정부를 다시 찾아와야 한다. 하지만, 지금 야권을 보면 그 꿈을 이룰까 싶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이 사라지면 서 대부분의 정치인이 이들이 남긴 기록만 누리겠다는 생각이다. 답답하고 분통이 터진다. 그래서 야권 단일정당만이 민주정부를 다시 세울 수 있다는 생각에 거리로 나섰다.

-왜 ‘1만 프로젝트’인가.

▲후보 단일화를 통해 6월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다. 지역구도가 많이 완화됐다. 하지만, 지방선거 승리 배경에는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 서 거로 인한 잔잔한 애정들의 표가 많았다. 사실상 전국 정당화를 추구했던 김대중·노무현 두 전 대통령의 목소리 값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여기에 안주하고 장구치고 놀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대선은 없고 국회의원만 되면 된다는 식의 사고가 문제다.

이 때문에 2012년 정권교체를 갈망하는 민심이 끓고 있다. 끓는 백성의 마음을 한데 모으자는 뜻에서 일종의

민란이지만, 시민혁명을 하자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정치권 전체에 대한 시민(백성)의 뒤집기 시도이다.

-특정 정당 중심이 아닌 왜 제3세대 야권 단일정당인가.

▲전국 정당화는 김대중·노무현 두 대통령의 평생 꿈이다. 환경이 충분히 만들어졌다. 하지만, 2012년 총선과 대선을 6·2 지방선거처럼 치를 수 있을 것 같은가? 너 하나 양보하고, 나 하나 양보하는 방식의 조정이 총선과 대선 때는 정당 사이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2011년까지 한나라당 등 극우 정파를 제외한 나머지 정치세력이 기존 정당의 틀을 벗고, 정당의 기록권을 벗고 새로운 단일정당에서 만나자는 것이다.

-정치권 반응은 어떤가.

▲김근태 전 의원과 천정배 의원은 글로 지지선언을 했다. 최문순 의원은 길거리 행사에도 참석했다. 그리고 이인영 전 의원의 제안도 이 프로젝트 제안과 비슷하다.

각 정당에도 뜻을 전달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선 이른바 ‘빅3’(손학규, 정세균, 정동영)에게도 제안은 전달했다.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의 뜻이기 때문에 전당대회 이후 행보를 지켜보겠다.

-서울에 이어 지방에서는 광주가 처음인데, 반응은 어떤가.

▲서울에 이어 광주를 바로 찾은 것은 광주가 민주화의 성지기 때문이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정당들에게 국민이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제1야당이 민주당이 중요인데,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시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에 광주를 맨 먼저 찾았다.

반응은 확실히 좋았다. 한나라당의 재집권은 절대 안 된다. 민주정부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말만 하면 모두 동참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역시 광주시민들은 전당이 빠르고 이해도 빨랐다. 또한, 적극적이었다.

-“친노세력의 부활” “노사모의 부활”이라는 소리도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기록권을 놓지 않으려는 세력이다. 대의 민주주의 속에서 민주적 정당을 만들고 직접 민주주의 요소를 담겠다는 시민들의 의지이자, 제대로 민주주의를 해보자는 것인데, 이를 친노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다. 그렇게 따지면 나는 친 DJ 35년. 친노 10년이다.

한편 문씨는 ▲17일 오후 6시 상무역 ▲18일 오후 2시, 21일 오전 9시 광천터미널 ▲19일 오후 6시 충장로 우체국 앞 ▲20일 오후 6시 전남대 후문 등에서 길거리 운동을 벌인다.

김종식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민주 야 4당의 단일 후보에 맞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며 “현재 난립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을 하루빨리 공천위 심사 등을 거쳐 압축하고 각종 정책 토론회 및 여론조사 등 투명한 공천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검증으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구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과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광주시대에 ‘서구청장 재선거 준비기획단’과 같은 공식기구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재선거에서는 전락공천이란 명분으로 밀실공천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만약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되지 않는다면 비민주 야 4당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갑석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서구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 공천과

“투명·공정한 공천기준 제시해야”

서구청장 재선 앞두고 한 목소리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와 관련해 민주당 후보군 내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재·보궐선거 공천 특성상 사실상 전락공천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 예비후보로 10여명이 난립해 지역위원장(서구갑 조영택, 서구고 김영진)이 주민과 당원을 앞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종식 예비후보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비민주 야 4당의 단일 후보에 맞서 민주당이 승리하려면 본선 경쟁력을 갖춘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며 “현재 난립한 민주당 예비후보들을 하루빨리 공천위 심사 등을 거쳐 압축하고 각종 정책 토론회 및 여론조사 등 투명한 공천기준과 절차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검증으로 본선 경쟁력이 가장 높은 후보가 공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현구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를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기준과 방법이 제시돼야 한다”며 “광주시대에 ‘서구청장 재선거 준비기획단’과 같은 공식기구를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과거 재선거에서는 전락공천이란 명분으로 밀실공천 사례가 다수 있었지만, 만약 이번 서구청장 재선거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 되지 않는다면 비민주 야 4당 후보에게 고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송갑석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서구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 공천과

정부터 출마 후보자들에 대한 엄정한 사전검증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뒤 “민주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도덕성과 개혁성, 참신성을 기준으로 컷오프(예비경선) 제도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후보들이 난립해 주민에게 혼선을 주고 있는 만큼, 공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영진, 조영택 의원이 투명한 절차를 하루빨리 제시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며 “자칫 공천과정에서 잡음이 본선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송갑석 예비후보도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에 대한 서구민들의 관심과 애정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 공천과

정부가 4대강 유람선 사업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의 용역에 따라 4대강 유람선이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로 전환될 수도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서 의원은 “정부가 카지노를 띄워서 4대강 사업의 빛을 갠다”며 “법정 차원에서 4대강 선상 카지노 도입에 대한 사전 협의 및 검토가 있었는지와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 의원은 이어 “현재는 헬세대로 남비하고, 카지노로 사해심을 조장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정쟁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4대강에 선상 카지노(?)

서갑원 의원 “정부가 도입 검토” 주장 파문

민주당 서갑원 의원(순천)이 16일 “정부가 4대강 리버 크루즈(유람선) 사업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태에서 4대강에서의 선상 카지노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문화체육관광부의 의뢰를 받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작성한 4대강 선형관광자원 개발 수립 연구 보고서와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의 일부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에 따르면 문화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산업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을 진행했고, 지난 5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으로부터 최종 보고서 제출받았다.

이 보고서에는 한강 등 내수면에서 유람선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 영업 허



개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서 의원은 소개했다.

용을 검토하고, 4대강 리버 크루즈와 연계한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도입으로 새로운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고 서 의원은 소개했다.

10·27 재보선 현장

조광향, 서구청장 재선거 출마

조광향 전 광주시의원은 16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년간 광주시의회 의원으로 일하면서 풍부한 의정활동을 경험했고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사회와 폭넓게 소통해 왔다”며 “구정장 중도 사퇴로 실추된 서구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믿음직한 어머니의 마음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10·27 서구청장 재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조 전 의원은 “비민주 야당 단일 후보에 맞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보편적 복지와 문화가 서구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모든 구정을 집중하는 구정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임우진, 내일 선거사무실 개소

임우진 서구청장 예비후보가 18일 오후 3시 서구 쌍촌동 호남대 앞 농협건물 10층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갖는다. 이날 개소식은 지역 정치인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대표, 직능단체 대표 및 임 후보 핵심 지지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임 예비후보는 개소식을 통해 “10·27 재선거”는 서구의 명예를 회복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나갈 마지막 기회이며, 주민 사이에 쌓여온 그간의 분열과 갈등을 씻어내고 주민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을 주는 단 계장이 되겠다”고 다짐할 예정이다.

北 “NLL 문제 논의하자”

북한은 지난 1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열어 전단살포와 서해 북방한계선(NLL) 문제 등을 협의하자고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북측이 전단 살포지구군 통신망을 통해 오는 24일 판문점 우 리측 지역에서 ‘쌍방군 군사적 합의 이행에 따른 현안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남북군사실무회담을 개최하자는 전 통문을 보내왔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측이 언급한 현안은 서해상 우발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합의와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 문제와 우리측 해상 훈련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땡큐죠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 마이녹실 임상결과

참여자의 92.9%가 효과 확인

구분	효과 확인률
매우호전	2.94%
호전	27.65%
약간호전	62.35%
기타(호전없음, 악화)	7.06%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즉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외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대 명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나다 순)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검색어: 마이녹실

제품문의 | 080-024-5525
02-2600-3884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일부러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와의 상의하십시오.]